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연장 실태 파악”… 합동TF 구성

대통령 SNS 발언에 금융권 회의… 대출연장 제한할 듯
세제 이어 기준 대출까지 ‘조준’… 매물 출회 압력 상승
“금융사 대출 관행적 만기 연장… 개선방안 등 마련을”

금융위원회가 다주택자의 관행적인 대출 연장 실태와 관련해 민관 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세제 혜택 촉수에 이어 기존 대출 제한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매물 출회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는 최근 5대 시중은행과 농협·수협·신협·사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과 관련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위는 과거에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 잔액과 만기 분포, 연장 절차 등을 점검해

개선 사항을 조치하기로 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6.27대책)와 주택 신규 건설과 무관한 매입 임대사업자(9.7대책)에 대출은 전면 금지됐으나, 과거에는 이러한 대출들이 상

당 부분 혼용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이 관련 대출의 적절성을 면밀히 심사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만기를 연장해 줬던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명재 대통령이 다주택자에게 대출 연장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공

정하지 않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엣트워터)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들의 기준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니”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6·27 대책 이후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

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돼 사실상 대출이 금지된 상황이다.

1주택자도 기준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9·7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대출도 전면 금지됐다.

그러나 신규 대출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것과 달리, 다주택자들이 기준 주택을 담보로 대출 기한을 쉽게 연장할 수 있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은 계속돼 왔다.

다주택자들의 기준 대출 연장과 관련해 별도 규정은 없어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대

출 연장을 허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상환 물량에 연장 불허, 만기 도래 물량에 대출 한도 설정 등 다양한 보완 대책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과 유예 종료에 이어 대출 연장 관행까지 손질될 경우 다주택자 매물 출회 유인이 한층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직접 차주의 다주택 보유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하기 쉽지 않고, 주담대 대부분이 만기가 긴 장기대출이라 연장 대상 잔액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김종민 광주은행 부행장이 김도열 사단장에게 위문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지역방위사단에 위문금 전달

지역사회 나눔가치 실현

광주은행(은행장 정일선)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방위사단인 제31보병사단(사단장 김도열)을 방문해 위문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명절 기간에도 지역 방위를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김종민 광주은행 부행장과 김도열 제31보병사단 사단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녀통장 만들면 용돈 씁니다”

4월까지 아이Wa 함께하는 첫 금융 이벤트… 2000좌 한도

광주은행(은행장 정일선)은 오는 4월 30일까지 비대면으로 미성년자 계좌 및 체크카드를 개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용돈 혜택을 제공하는 ‘아이Wa 함께하는 첫 금융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벤트는 광주Wa뱅크(APP)의 ‘아이Wa 계좌 개설’ 서비스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부모(법정대리인)가 19세 미만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 해당 계좌로 현금 5000원이 지급된다.

만 12세 이상 자녀의 경우 ‘아이Wa 체크카드’도 함께 발급할 수 있다. 체크카드(법정대리인) 기준 문자 마케팅 수신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 요건 충족 시 지동 응모된다.

‘아이Wa 계좌 개설’과 ‘아이Wa 체크카드’는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영업점 방문 없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 자녀의 입출금 계좌와 체크카드를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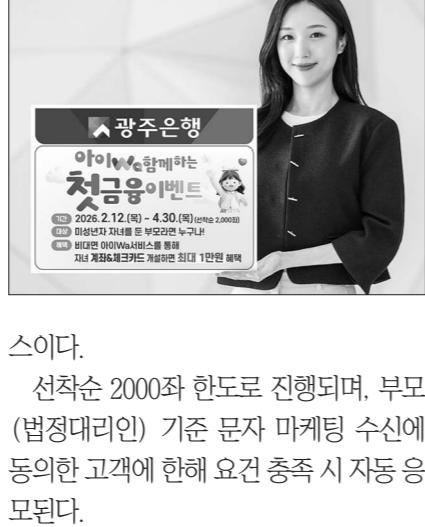
들이 참석, 지역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따뜻한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광주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지역방위사단을 찾아 위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종민 부행장은 “지역사회에 안전하고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 덕분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다”며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 ESG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

광주은행 “자녀통장 만들면 용돈 씁니다”

4월까지 아이Wa 함께하는 첫 금융 이벤트… 2000좌 한도



문상용 신성장사업부장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와 카드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자녀들의 유통비를 금융 습관 형성을 돋우고, 부모님들의 금융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본 서비스를 통해 가입 가능한 상품을 확대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기획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삼성전자, ‘18만전자’ 등극… 코스피 약보합

장중 최고치 경신 후 차익 매물… 외국인 9790억 순매도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18만 전자’ 고지에 올라섰다.

삼성전자는 지난 1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장보다 1.46% 오른 18만12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삼성전자 주가는 18만원선을 넘어서 건 이번이 처음이다.

0.50% 오른 17만9500원으로 출발한 삼성전자는 오전 한때 18만44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간밤 미국 뉴욕증시가 급락 마감하고 필리핀화폐가 반도체지수도 2.50% 내렸지만

치를 재차 경신했다.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하며 장 후반 하락세로 전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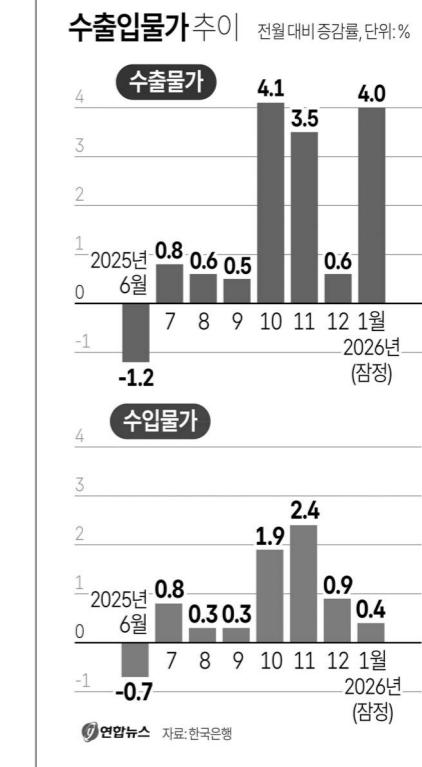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9.91p(1.77%) 하락한 1106.08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7084억원을 순매수했다. 기관도 824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외국인은 홀로 9790억원을 순매도하는 차익을 실현했다.

외국인은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속한 전기·전자 업종에서만 9477억 원을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7483억원과 60억원을 순매수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



수입물가지수 7개월 연속 상승 D램 31.6% 등 수출도 오름세

지난달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1차금속제품과 광산품 등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물가가 7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1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43.29로 지난해 12월(142.68)보다 0.4% 올랐다. 수입물가지수가 7개월 연속 오른 것은 2018년 1월~7월 이후로 7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원재료는 농림수산품이 0.5% 내렸으나 광산품이 1.0% 오르면서 0.9% 상승했다. 중간재는 1차금속제품(6.3%) 등이 오르면서 0.8% 상승했으며,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0.3%, 1.4% 씩 내렸다.

세부 품목 별로는 기타금속제품(24.6%), D램(14.7%), 동광석(10.1%), 천연가스(1.6%) 등이 상승폭이 커졌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달 국제유가와 환율이 하락했지만 광산품과 1차금속제품 등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 물가가 7개월 연속 상승했다.

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 1467.40원에서 1월 1456.51원으로 0.7% 하락했다.

같은 기간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월평균·배럴당) 62.05달러에서 61.97달러로 0.1% 내렸다.

지난 달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는 145.88로 지난해 12월(140.28)보다 4.0% 올랐다.

품목 별로는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12.4%)와 1차금속제품(7.1%)을 중심으로 공산품이 4.0% 올랐다.

수입은 물량지수(126.26)와 금액지수(146.90)가 각각 14.5%, 12.5% 증가했다.

수입물량지수는 2022년 8월(15.7%)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102.28)는 전년 동월 대비 8.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수출가격이 7.0% 오른 반면 수입가격은 1.8% 내린 결과다.

연합뉴스

전남도, 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경쟁 돌입

전력·용수·재생에너지 등 산업 인프라 최대 강점

전남도가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경쟁에 공식 돌입했다. 전력·용수·재생에너지 등 산업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한 강점을 앞세워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산업 지형을 남부권으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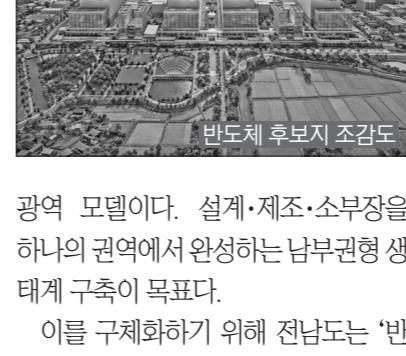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반도체 편법을 가능화하면서 하루 107만t의 용수와 9.3GW의 전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도권은 용수 여유분이 0.9%에 불과하고, 송전망 포화로 전력 공급 역시 한계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RE100 이행 부담까지 감안하면 임시 경쟁력을 점차 좁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전남 서부권은 영암호·금호호·영산강호를 통해 하루 130만t 이상의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 여기에 전남·광주가 공동 추진 중인 태양광·해상풍력 확장 사업을 통해 17.5GW 규모의 재생에너지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전력·용수·RE100이

리는 3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입지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부각된다.

전남도는 이를 발판으로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의 중심 거점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초광역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국가 산업 지도를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남·광주가 후보지로 주목받는 배



광역 모델이다. 설계·제조·소부장을 하나의 권역에서 완성하는 남부권형 생태계 구축이 목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전남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용역’을 추진한다. 국가 지정과 대규모 편 유치를 위한 입지 전략, 산업단지 조성 계획, 기업 인센티브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용역은 2026년 상반기 착수를 목표로 한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특별법 통과는 전남과 광주가 남부권 반도체 거점으로 도약할 제도적 기반”이라며 “RE100 국가산단과 첨단 패키징 클러스터, 미래첨단국가산단을 연계한 삼축 산업체계를 구축해 초광역 산업권 완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ews@gwangnam.co.kr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금융기관에 5197억 공급

작년보다 526억 감소… “연후 줄고 연말연초 수요 분산”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설 연휴 전 10영업일 동안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에 5000억 원 규모의 화폐를 공급